

‘소통부족’ 방학 중 무상급식...겨울 재추진

시교육청, 학비노조 반대에 철회
초등학교 150개교 중 1곳만 신청
이달 중 급식 관련 협의기구 구성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여름 방학 중 초등학교 150개교 전체 1, 2학년 돌봄교실 참여 학생과 유치원 126곳 등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방학 중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급식학생 5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위탁급식을 ▲50명 초과 급식대상자 학교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직영 또는 위탁급식 등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급식 관련 종사자와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학비노조), 광주교사노조, 광주교총 등이 ‘소통 없는 밀어붙이기 행정’이라며 방학 중 무상급식 추진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2호 공약인 ‘방학 중 무상급식’이 지역 교육단체와 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무산됐다. 당초 추진 계획과 달리 일부 유·초등 시범 운영으로 변경된 가운데 시교육청은 급식과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 겨울방학 재실시를 목표로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장의 혼란만 남기고 여름방학 중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포기했다”며 “이는 독단과 무능, 불통이 불러온 보여주기식 방학 급식 사업이라는 것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역 교육단체·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히자 시교육청은 초등학교생과 유치원생 등 1만여명에게 급식을 제공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직영 급식을 신청한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 무상급식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각 초등학교별로 무상급식 신청을 받았지만, 전체 150개교 중 1개 학교만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여름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조사해보니 학교 현장에서 급식실 환경 및 인

무 부담, 코로나 및 식중독 우려 등을 이유로 급식실에서 배식하는 직영급식에 난색을 보였다”며 “학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방학 중 급식 전면 실시 대신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영급식을 희망한 초등학교 1개교와 유치원 10곳에 대해서만 20여 일 동안 무상급식이 시범운영된다.

시범운영 11곳을 제외한 나머지 149개교 초등학교는 기존 방식대로 위탁급식, 도시락 등으로 운영하며, 비용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노조,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반대가 큰 상황인 만큼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급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겨울방학부터는 무상급식 정책을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맞벌이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급식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맛있고 영양이 있는 식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방학 중 전면 무상급식의 본래 취지”라며 “앞으로 시범운영과 협의기구를 통해 학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해 당사자의 요구 사항도 조율해 나가면서 보다 세밀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 모씨는 “방학 중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응두 사미가 된 꼴이나 다름없다”며 “결국 시교육청과 교육단체 간 소통 부재로 무상급식이 무산된 만큼 앞으로는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 겨울방학부터는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푸른온리마켓’ 개장 16일 오후 광주시 동구 푸른길 광장에서 열린 ‘푸른온리마켓’에서 시민들이 모자, 공예품 등을 구입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시교육청, ‘학교회계 묻고 답하기’ 책자 배부

광주시교육청이 학교회계 예산 및 집행 관련 궁금한 사항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학교회계 묻고 답하기’를 제작해 단위학교에 배부한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책자는 학교 현장에서 회계처리 과정 중 궁금해하는 사항을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제작됐다.

교직원들이 학교회계 관련 업무 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묻고 답하기 주요내용은 ▲예산 및 결산 분야 16개 ▲세입 및 세출 분야 77개 ▲세입세출의 현금 분야 3개 ▲여비 분야 55개 등 총 151개의 질문·답변으로 구성됐다. 특히 예산편성 지침과 집행기준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회계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정확한 예산편성과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청 사업담당자들을 위한 회계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회계교육 기회가 부족한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목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최환준 기자

온열질환자 10명 중 4명 ‘현장직 근로자’

광주·전남에서 올 여름 발생한 온열질환자 10명 가운데 4명이 현장 노동자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66명(광주 5명·전남 61명) 중 29명(43.9%)이 건설·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온열질환자 61명 중 27명이 노동자다. 직종별로 ▲건설현장·택배업 등 단순 노무 종사자 14명 ▲농민·어업 숙련 종사자 7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명 ▲장치 기계·조립 종사자 2명 ▲서비스 종사자 1명 등이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는 공장 근로자 2명이 열탈진 의심 증상 등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다.

지난달 27일 오후 3시 12분께 광산구 장록동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24)가 열탈진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같은 달 19일 오후 2시 40분께 영암군 신북면에서는 필리핀 국적 노동자 B씨(44·여)가 발열 증상을 보이며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대비 특별 대응 기간”을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로 정하고 실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제공)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물과 그늘막, 냉방 설비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업체 건설 노동자는 “공사 현장 1층에 그늘막과 정수기가 설치되긴 하지만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깨끗한 물을 마시기가 어렵고 고층 현장의 경우 물 공급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개인 물통을 들고 다닌다”며 “이동식 그늘막도 증마다 설치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채민 기자

광주·전남 신규 확진자 2,000명대 근접

광주·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에도 각각 900명 이상 나와 2,000명대에 근접했다.

광주시는 전날 하루 동안 93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직전일보다 125명 늘어난 수치로, 신규 확진자 중 25명은 해외 입국 감염자다.

전남에서는 16일 기준 908명이 신규 확진돼 지난 15일보다 19명 늘었다.

해외 입국 확진자는 2명에 그쳤으나, 요양병

원·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39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여수 206명, 순천 157명, 목포 100명 등 지역에서 세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와 전남은 최근 확진자가 2배가량 급증하기 시작, 지난주 연일 8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다 다시 900명대로 확진자가 늘어났다.

/임채민 기자

<h3>장성 토지(매매, 분양)</h3> <p>광주에서 20분 (6M도로인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h3>상무지구(상가매매)</h3> <p>1) 감평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4천)</p> <p>3) 평수140평, (전용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 시비없음, 시설완비)</p>	<h3>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h3>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p>광주 광산구 생암동(근린상가) ▶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 4억5천 (5/26)</p> <p>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평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평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p> <p>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평가 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 2억8천(7/19)</p>
<p>010-6670-9800 (062-382-5500)</p>		